

닥터K 이닝이터…최동원을 꿈꾸는 박세웅

〈롯데〉

Mr. 베이스볼

“포크볼 던진 이후 기록 좋아진 것 같아
‘안경 쓴 에이스’ 영광…계보 있고 싶다”

올 시즌 롯데 최고의 수확은 단연 박세웅(21)이다. 8일까지 18경기(97이닝)에서 7승7패 방어율 4.73을 기록 중이다. 정확히 100개의 삼진을 잡고 있다. 린드블럼~레이리~송승준 ‘빅3 선발’이 휘청거렸음에도 롯데가 5강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동력은 박세웅, 박진형(21) 등 영건들의 기대 이상 활약이 컸다. 지난해 11패(2승)의 시련을 딛고 KBO리그 미래의 우왕 에이스로 성장하는 박세웅의 이야기를 7일 시작에서 들어봤다.

●체인지업 버리고 포크볼을 취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올 시즌을 자평한다?

“작년(114이닝 방어율 5.76)보다는 괜찮은데 아직 기록이 있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보다 직구, 변화구 구위가 좋아졌음을 스스로 느낀다. 스프링캠프 기간 고친 것이 많았다. 또 포크볼을 던지며 (기록이) 좋아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꿨나?

“공 던질 때의 사전처리나 방향성을 신경 썼다. 그 덕에 제구력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 같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투수는 느낀만큼 조금 바뀌도 공에 나타나는 차이가 달라진다.”

-포크볼은 어떻게 던지게 됐나?

“작년엔 체인지업을 던졌다. 올해 시범경기 때, 포수 (강)민호 형이 ‘지금부터 포크볼로 스트라이크 잡고, 유인구도 던질 수 있도록 연습해놓으라’고 충고했다. 그때부터 포크볼을 실전 때 시험하다보니 정규시즌 때도 던질 수 있게 됐다. 원래부터 던질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던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구질 습득이 빠른 것 같다.

“구질을 선택하면, 캐치할 할 때도 그 구질로 연습한다. 그러다보니 습득이 좀 빠른 것 같다.”

-올해 던지는 레퍼토리는?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 체인지업을 올해 아예 안 던진다. 아직 직구에 힘이 있으니까 유리한 카운트를 잡고, 포크볼이나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던져 타자를 잡아낸다.”



롯데 박세웅은 올 시즌 ‘닥터K’이자 ‘이닝이터’로 성장하며 차세대 우왕 에이스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안경 쓴 롯데 에이스 계보를 잇는다는 얘기에 “비교 자체가 영광이다. 선배님들이 해낸 기록을 나도 세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DB

●‘닥터K 이닝이터’로 성장 중

-kt 입단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해 대형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왔다. 올 시즌을 맞는 심적 부담이 컸을 것 같다.

“지난해 1군에서 한 시즌을 해봤으니까…코치님들과 상의해 웨이트 위주로 훈련하며 체중을 늘렸다. 시즌 들어가면 빠질 수 있다고 봤는데 아직은 체력 유지가 된다. 지난해는 내가 던진 경기만 놓고 봐도 이닝이 거듭될수록 구속도 떨어졌고, 제구도 흔들렸는데 그 부분이 올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마인드 컨트롤도 훨씬 안정된 것 같다.

“작년에는 초반에 1~2점이라도 줘버리면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실점해도 5~6회를 던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점수는 투수라면 누구든 주니까, 주더라도 팀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내려가야만 한다. 실점 점수를 많이 줘도 내가 많이 못 던지면 다음에 나오는 선배님들이 많은 이닝을 막아야 하니까 신경을 쓴다.”

-항상 기대감 속에서 던지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나가는 경기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한다.”

-올해 탈삼진(90이닝 당 탈삼진 9.28개)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직구 구속이 계속 나오니까 변화구 유인구에 타자들의 스윙이 나온다. 삼진 욕심은 딱히 없다.”

-5월(1승3패 방어율 8.74)에 잠시 부진했다.

“4월에 3승(방어율 3.05)을 하자 5월부터 타자와의 승부를 빠르게 가져가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6월부터 타자와의 승부 때, 볼로 던질 건 던지고, 잡아야 할 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다시 안정이 됐다.”

-kt전(13.1이닝 방어율 0) 정말 잘 던지는데, 반대로 한화전(9.2이닝 방어율 16.76)은 약했다.

“(친정팀) kt라고 해서 더 잘 던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던지다보니까 잘 됐다. 한화는 직구에 좋은 타격을 하는 팀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금은 야구가 재미있다”

-WBC, 올림픽 등에서 국가대표로 던질 토종 우왕으로 기대를 받는다.

“국가대표는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면 한번쯤 해보고 싶은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대표가 된다면 좋은 기회일 텐데 아직은 시즌에 집중하고 싶다. 성적이 좋으면 뽑힐 수 있을 것이다.”

-룸메이트가 누구인가?

“황재균 선배인데 내가 타자 심리에 관해 물어본다. ‘이런 상황에 타자는 어때냐’ 하면 이야기를 잘 해주신다.”

-과거 KIA 윤석민한테 그림 잡는 법을 배우려고 찾아가는 등, 호기심이 강한 것 같다.

“그런 편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박진형도 잘 해주고 있는데 영건투수들끼리 경쟁 심리는 없나?

“그런 생각은 안 한다. 좋은 투수가 많이 나오면 팀 성적에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따로 라이벌은 없다.”

-요즈음 야구가 재미있을 것 같다.

“학교 다닐 때에는 공 던지는 것이 쉬웠다. 잘 치는 타자도 많이 없었고, 프로 와서 첫해부터 공이 자주 맞아나가기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점점 얻어맞는 빈도수가 줄어드니까 조금은 야구가 재미있다고 느낀다. 이용훈 투수

코치님께서 ‘쫓기지 말고 즐겁게 던지라’고 조언해주신다.”

-대뷔 첫 승이 어렵게 나와서 얻은 것이 많을 것 같다.

“7패하고 나왔다. 승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니까 잘 던져도 안 될 때도 있고…승리에 대해서 크게 빠져들지 않으려 한다.”

-다승이 아니면 목표가 무엇일까?

“이닝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보통 6회까지 던지는데 더 던지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100이닝 가까이 왔다. 앞으로 8~9경기 더 나갈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져서 규정 이닝 넘겨보고 싶다.”

●최동원, 염종석의 후계자? 롯데 우승 뒤, 품을 수 있는 꿈

-부모님은 동생(kt 좌완루키 박세진)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동생도 1군 올라와서 던지고 있는데 부모님은 크게 내색 안 하신다. 진짜 잘 던지는 투수들도 힘이 부칠 때가 있는데 이제 갖 고교 졸업한 선수가 바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터다.”

-동생과 선발 맞대결하는 상상을 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거 같다. 현재의 선발 맞대결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생하고 따로 그런 얘기는 안한다. 만날 시간부터 잘 알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나는 내가 할 것을 하고, 동생은 동생 할 것을 하면 된다.”

-롯데에 와서 인기를 실감하나?

“잘할수록 야구장을 더 찾아주시는 것 같다. 자기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안경 쓴 롯데 에이스 고(故) 최동원-염종석의 계보를 잇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인가?

“그 선배님들은 한국시리즈 우승 결과를 내신 분들이다. 비교 자체가 영광이다. 선배님들이 해낸 기록을 나도 세워보고 싶다. 그것이 목표라면 목표다.”

사치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박세웅
▲1995년 11월30일생 ▲대구경운초~경운중~경북고 ▲우투우타 ▲183cm·79kg ▲2014년 신인드래프트 kt 1차지명~2015년 롯데로 트레이드 ▲연봉 5600만원



‘ML 3000안타’ 신화가 된 이치로 스즈키 이치로(마이애미)가 빅리그 데뷔 16년만에 역대 30번째 3000안타 대기록을 작성했다. 8일(한국시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와 원정경기에서 7회 우측 담장을 맞는 3루타로 3000안타 금자탑을 쌓은 이치로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쿠어스필드 전광판에도 이치로의 대기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떴다.

한국,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준우승

한국리틀야구가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거뒀다.

최철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 한국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버모어 맥스배어파크에서 열린 ‘2016 세계리틀리그 월드시리즈 인터미디어트 디비전(13세 이하)’ 월드시리즈 최종 결승전에서 미국 서부 대표인 하

와이 팀에 1-5로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인터내셔널 그룹에서 라틴아메리카와 푸에르토리코를 연파하고 인터내셔널 그룹 결승전에 선착한 대표팀은 전날 라틴아메리카를 14-0으로 대파하며 하와이 팀과 만났지만 석패했다. 1회 수비에서 안타 1개와 폭투, 보크로 3점을 내주고 끝

려한 한국은 4회초 김구민의 솔로홈런으로 1-3으로 따라 붙었으나, 6회 2실점하며 패했다.

2016 리틀리그 월드시리즈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미국 6개 지역 선발 대표팀과 국제 5개 지역 선발 대표팀이 각각 미국 그룹과 국제 그룹으로 조를 나눠 진행했고, ESPN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한국리틀야구대표팀은 9일 밤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nirvana@donga.com



정은숙

서병문

정제묵

배구협회 새 수장 누구?

정은숙·서병문·정제묵 후보 3파전

대한배구협회를 이끌 수장은 누가 될까?

제38대 대한배구협회 회장 선거가 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여고에서 열린다. 지난 4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정은숙 JS강남웨딩문화원 대표(기호 1번),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기호 2번), 정제묵 주식회사 우케이 회장(기호 3번) 등 3명이 출마했다.

기호 1번 정 대표는 유일한 여성후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서울시 생활체육배구연합회 초대회장을 거쳤다. 우수 지도자 육성제 배구 저변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호 2번 서 이사장은 영광고-경희대를 졸업한 배구인 출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국가대표 전임 지도자 도입, 트레이닝 센터 건립, 국제대회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기호 3번 정 회장은 경기도배구협회장 출신이다. 생활체육과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배구계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인사는 아니다. 프로배구를 총괄하는 KOVO(한국배구연맹)와의 역할관계가 큰 틀에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말이 많았던 대한배구협회가 개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체육단체 통합에 따라 대한배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의 통합회장 선거로 치러진다. 대한배구협회 회장은 임기가 4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한국배구를 대표하게 된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홍석현 회장이 졌다

제5대 대한바둑협회장 선거 대이변
신상철 일요신문사장 새 회장 당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됐던 대한바둑협회 회장선거에서 이번이 벌어졌다. 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에서 신상철(68·사진)

일요신문 사장이 제5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의원 110명 중 97명이 투표했으며 신상철 사장은 57표를 얻었다.

반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였던 홍석현(67·중앙일보 회장) 현 회장은 40표를 얻는데 그쳐 대한바둑협회뿐만 아니라 바둑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홍 회장은 한국기원의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신상철 사장은 일요신문배 어린이바둑대회, 한바변바둑대회 등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30여 차례 주최했으며, 한국중고바둑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아마추어 바둑계를 위해 기여해 왔다.

이날 선거에 참여한 한 대의원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장선거는 6월에 열리려다 선거인단 조정, 선거일정 등의 문제로 법정다툼이 벌어져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이 대의원은 “앞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하다”며 우려스러워했다.

바둑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바둑교실 원장 출신 등 바둑계 인사들이 대부분인 대의원들이 평소 협회의 정책결정 과정 등으로부터 소외돼 왔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약점들) 잘 공략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선거현장을 지켜 본 또 다른 관계자는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겠다는 신 사장의 선거 홍보전략이 먹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신상철 사장은 “프로는 돈이 흐르는 곳이고 아마는 삶이 흐르는 곳이다. 시도바둑협회 활성화, 어린이대회를 통한 바둑 보급 조성 등 아마바둑계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코리안 빅리거 경기 결과 8일(한국시간)	
김현수 볼티모어	
시카고W전(원정)	
▶ 선발출전(2번 좌익수) ▶ 4타수 1안타 2득점 2볼넷 ▶ 시즌 타율 0.330(185타수 61안타) ▶ 팀 10-2 승리	
강정호 피츠버그	
신시내티전(홈)	
▶ 선발출전(5번 3루수) ▶ 3타수 1안타 1볼넷 ▶ 시즌 타율 0.234(214타수 50안타) ▶ 팀 3-7 패배	
추신수 텍사스	
휴스턴전(원정)	
▶ 선발출전(1번 지명타자) ▶ 5타수 1안타 2득점 2삼진 ▶ 시즌 타율 0.271(140타수 38안타) ▶ 팀 5-3 승리	
최지만 LA 에인절스	
시애틀전(원정)	
▶ 교체출전(9회 대타) ▶ 0타수 무안타 1볼넷 ▶ 시즌 타율 0.169(83타수 14안타) ▶ 팀 1-3 패배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